

# 현안과 과제

| 2/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, 최저점으로 하락

## 2/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, 최저점으로 하락

□ 2012년 2/4분기 HRI 한반도 평화지수 전망 결과 .....	1
< 부록 1 > HRI 한반도 평화지수 개요 .....	6
< 부록 2 > 교류지수 주요 변수 .....	7
< 부록 3 > 남북 관계 전문가 설문 조사 .....	8

## Executive Summary

### □ 2/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, 최저점으로 하락

(종합 평가) 2012년 1/4분기 HRI 한반도 평화지수와 2/4분기 기대지수를 조사한 결과 전문가들의 주관적 평가가 큰 폭 하락하여 남북 관계가 매우 악화된 것으로 평가된다.

한반도 평화지수는 29.1로 2분기 연속 하락하여 긴장 '상태가 더욱 심화되었다. 한편 2012년 2/4분기 기대지수도 24.1로 2009년 3/4분기 조사 이래 최저점을 기록하여, 2011년 4/4분기의 51.0(협력·대립·공존 상태)에서 24.1로 '긴장 고조' 상태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. 이러한 결과는 '북미 2.29 합의'에도 불구하고,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강행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.

(주요 특징) 2012년 1/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와 2/4분기 기대지수를 조사한 결과, 다음 5가지 특징이 있다.

**첫째, 1/4분기 전문가 평가지수가 연평도 도발 당시 수준으로 대폭 하락하였다.** 전문가들의 인식과 판단에 근거한 주관적 지표인 전문가 평가지수는 31.9에서 18.6로 13.3p 대폭 하락하여 연평도 도발 당시 수준으로 긴장이 고조된 것으로 인식되었다.

**둘째, 남북관계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대폭 하락하였다.** 2012년 2/4분기 기대지수도 40.7에서 24.1로 16.6p로 하락해 현 정부 임기 내 최대 낙폭과 최저점을 기록하였다. 이는 광명성 3호 발사 이후에도 북한의 3차 핵 실험 가능성과 특별작전 행동소조 '위협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.

**셋째, 교류지수는 개성공단 교역액 증가 등으로 상승세를 유지하였다.** 실적에 기초한 객관적 지표인 교류지수는 남북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, 30.8에서 36.9로 6.1p 상승하여 전 분기의 상승세가 유지되었다. 이는 교역사업 자금대출 및 거래할 큰 사전 편찬사업 등에 남북협력기금이 지원된 것과, 개성공단 교역액 증가(1~2월 전년 동기 대비 36% 증가)에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.

**넷째,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평가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어, 현 상황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더욱 심화되었다.** 주관적 평가인 전문가 평가지수와 객관적 실적치인 정량분석 지수의 격차는 20.9p로 전 분기 9.2p에 비해 2배 이상 확대되었다. 이는 전문가 평가지수가 전 분기 31.9에서 18.6으로 13.3p 대폭 하락한 것에 기인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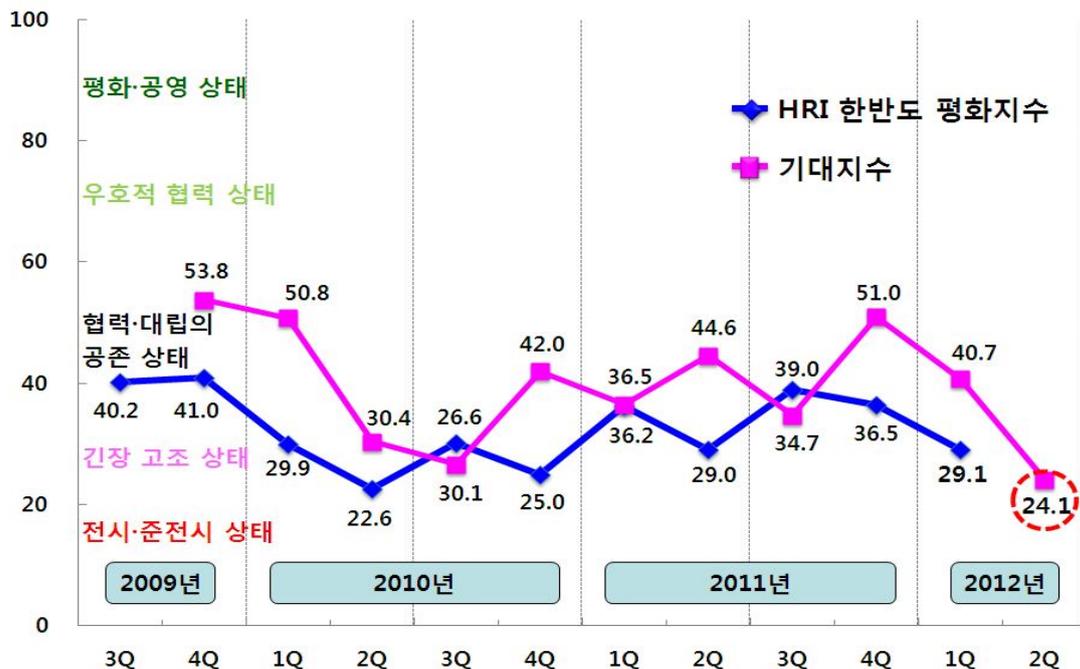
**다섯째, 성향별 평가에서는 성향 구분 없이 모두 남북관계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평가했고, 특히 보수 성향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더욱 악화되었다.** 1/4분기 평가지수와 2/4분기 기대지수의 경우, 보수 성향의 하락폭은 각각 19.1p, 23.0p로 진보 성향의 11.0p, 8.7p에 비해 약 2~3배에 달했다.

□ 2012년 2/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 전망 결과

○ (종합 평가) 2012년 1/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와 2/4분기 기대지수는 북미 2.29 합의에도 불구하고,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강행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재차 고조됨에 따라 지난 분기에 비해 각각 7.4p, 16.6p 대폭 하락

- 2012년 1/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는 29.1을 기록하여 전 분기에 이어 연속 하락세를 나타냄으로써, '긴장 고조' 상태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
  - 4/4분기 36.5를 기록했던 한반도 평화지수는 전기 대비 7.4p 대폭 하락한 29.1로 나타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 고조가 지속·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
- 기대지수도 전기 대비 16.6p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전문가들의 2012년 2/4분기 남북 관계에 대한 전망은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됨
  - 2012년 2/4분기 기대지수는 24.1, 2009년 3/4분기 조사 이래 최대 낙폭과 최저점을 기록하여 긴장고조 상태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
< 2009~2011 HRI 한반도 평화지수 추이 >



○ (특징 분석) 전문가 평가지수와 기대지수의 대폭 하락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주도, 남북 관계의 경색 국면이 지속되고 있음을 반영

- 1/4분기 전문가평가지수는 지난 분기의 31.9보다 13.3p 대폭 하락한 18.6을 기록, 정량분석지수는 39.5를 기록하여 전 분기 대비 1.6p 소폭 하락
  - 전문가 평가지수의 큰 폭 하락은 광명성 3호 발사에 따른 한반도 긴장 고조와 잇따른 유엔 의장성명에 대한 반발로 3차 핵 실험 가능성 고조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
- 전문가들의 기대지수도 지난 분기의 하락세에 이어 더 큰 폭으로 하락, 남북관계 경색심화를 예고
  - 이는 3차 핵 실험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고, 아울러 현 정부에 대한 북한의 지속적인 대남비난 발언, 잇따른 최고사령부의 구체적인 ‘특별작전 행동소조’ 위협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
- 특히,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평가 간 격차가 확대됨으로써, 현 상황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평가
  - 주관적 평가인 전문가평가지수와 객관적 평가인 실적치로 보는 정량분석지수 간의 격차( |전문가평가지수 - 정량분석지수| )는 20.9p로, 지난 분기 9.2p에 비해 2배 이상 격차 확대
  - 이는 전문가 평가지수가 전분기의 31.9에서 18.6으로 13.3p 큰 폭으로 하락한 데 기인

< 2010~2012 HRI 한반도 평화지수 조사 결과 >

구분	HRI 한반도 평화지수				기대지수	
	전문가 평가지수	정량분석지수	이벤트지수	교류지수		
'12-1분기	29.1 (▽7.4)	18.6 (▽13.3)	39.5 (▽1.6)	42.0 (▽9.4)	36.9 (▲6.1)	24.1 (▽16.6)
'11-4분기	36.5 (▽2.5)	31.9 (▽8.1)	41.1 (▲3.1)	51.4 (▲3.9)	30.8 (▲2.3)	40.7 (▽10.3)
'11-3분기	39.0 (▲10.0)	40.0 (▲18.2)	38.0 (▲1.9)	47.5 (▲2.3)	28.5 (▲1.6)	51.0 (▲16.3)
'11-2분기	29.0 (▽7.2)	21.8 (▽9.3)	36.1 (▽5.2)	45.2 (▽2.8)	26.9 (▽7.7)	34.7 (▽9.9)
'11-1분기	36.2 (▲11.2)	31.1 (▲15.6)	41.3 (▲6.8)	48.0 (▲15.2)	34.6 (▽1.6)	44.6 (▲8.1)
'10-4분기	25.0 (▽5.1)	15.5 (▽14.9)	34.5 (▲4.7)	32.8 (▽2.1)	36.2 (▲11.6)	36.5 (▽5.5)
'10-3분기	30.1 (▲7.5)	30.4 (▲19.5)	29.8 (▽4.6)	34.9 (▲1.6)	24.6 (▽10.8)	42.0 (▲15.4)
'10-2분기	22.6 (▽7.3)	10.9 (▽5.6)	34.4 (▽8.9)	33.3 (▽9.5)	35.4 (▽8.4)	26.6 (▽3.8)
'10-1분기	29.9	16.5	43.3	42.8	43.8	30.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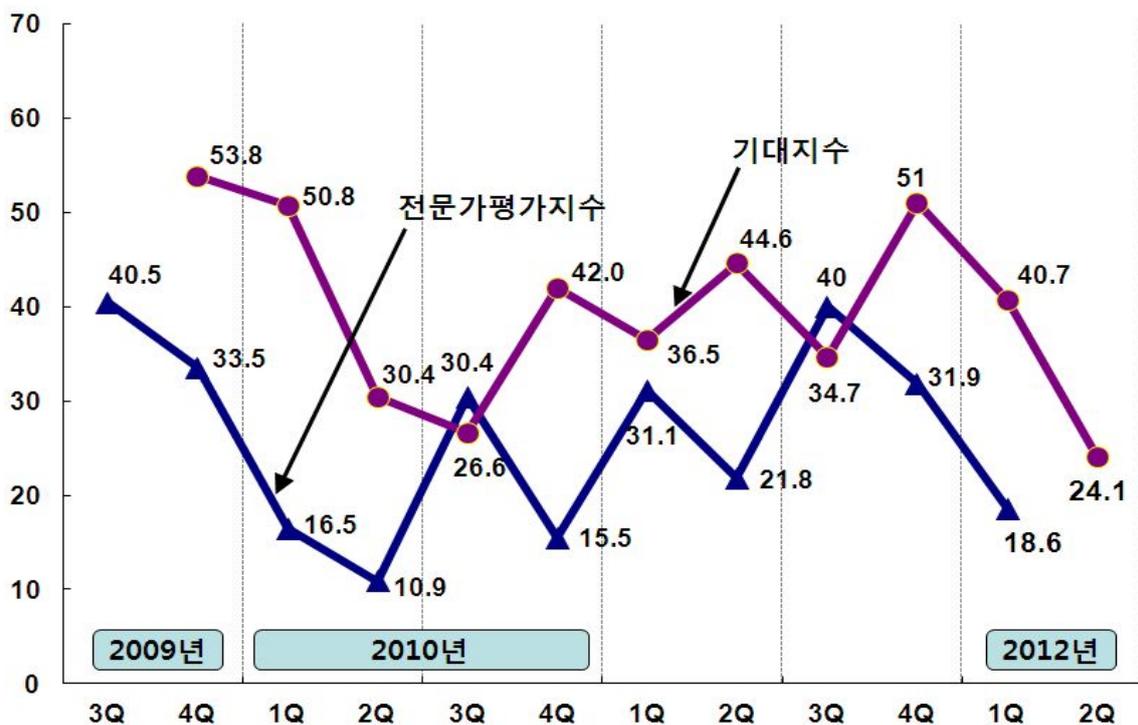
주 : ( )내는 지난 분기 대비 증감을 표시(p)

○ (항목별 평가) 전문가평가지수는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최저치 수준으로 악화, 실적에 기초한 교류지수는 개성공단 교역액 증가 등으로 전기 상승세 유지

(1) 전문가평가지수 (2011년 4분기 : 31.9 → 2012년 1분기 : 18.6)

- 총 74명의 전문가를 설문조사한 결과, 이들의 남북 관계에 대한 평가는 지난 분기의 '긴장 고조' 상태가 더욱 악화
  - 1/4분기 전문가평가지수는 전기 대비 13.3p 하락한 18.6을 기록하면서, 북한의 연평도 도발 당시 수준으로 긴장이 재차 고조
  - 이는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와 이에 따른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강화에 대한 3차 핵 실험 가능성 증대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
- 2/4분기 기대지수도 전기 대비 16.6p 하락한 24.1을 기록함으로써, 전문가들의 2012년 2/4분기의 남북 관계 개선 기대감은 대폭 하락하여, 지난분기의 하락세를 이어감
  - 이는 북한이 최고사령부의 '특별작전행동소조' 성명을 통해 구체적인 도발을 언급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

< 2009~2012 전문가평가지수와 기대지수의 추이 >



(2) 정량분석지수 (2011년 4/4분기 : 41.1 → 2012년 1/4분기 : 39.5)

- 1/4분기 정량분석지수는 지난 분기의 41.1보다 1.6p 하락한 39.5을 기록함으로써, 남북 관계의 객관적 실적도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
- 정량분석지수의 소폭 하락은 정치·군사 부문의 '이벤트 지수'가 9.4p 대폭 하락한 반면, 경제·사회·인도적 지원 부문의 '교류 지수'가 6.1p 상승한 것에 기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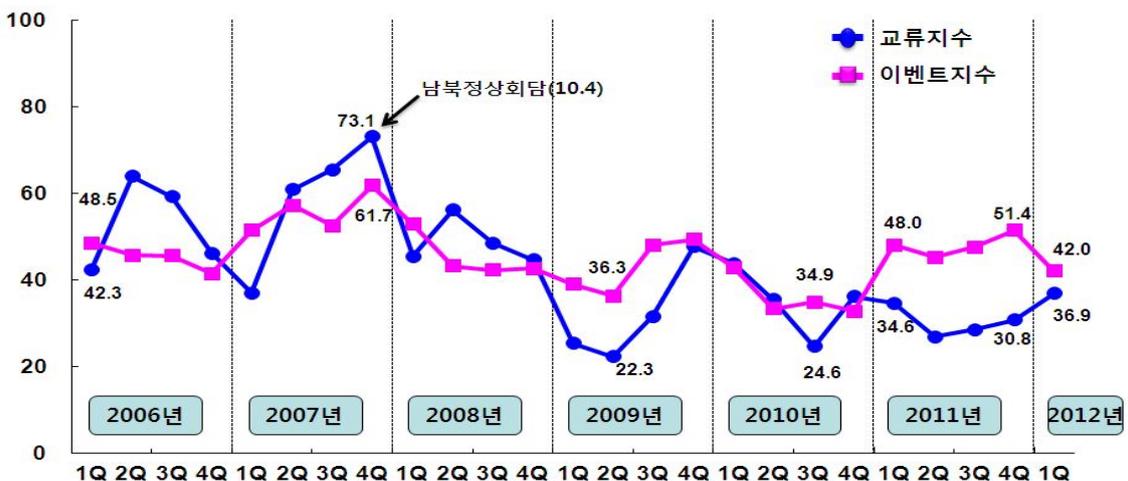
① 이벤트지수 (2011년 4/4분기 : 51.4 → 2012년 1/4분기 : 42.0)

- 이벤트지수는 지난 분기 대비 9.4p 대폭 하락한 42.0을 기록함으로써 남북 간 정치·군사적 관계가 크게 악화되었음
-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이에 따른 조문정국 마찰, 북한의 동해안 단거리 미사일 발사, 키 리졸브 군사훈련 등의 긴장고조 사건 지속으로 큰 폭 하락

② 교류지수 (2011년 4/4분기 : 30.8 → 2012년 1/4분기 : 36.9)

- 교류지수는 전기 대비 6.1p 상승한 36.9를 기록하여 전기의 상승세를 유지
- 교류지수의 상승은 남북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, 교역사업 자금대출 및 거래할 큰 사전 편찬사업 등에 남북협력기금 지원과 개성공단 교역액 증가에 기인
- 특히 남북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, 개성공단의 1~2월 남북교역액은 작년 동기 대비 2억 3,500만 달러에서 3억 2,000만 달러로 36% 증가

< 2006~2012 이벤트지수와 교류지수의 시계열 추이 >



주 : 이벤트지수는 정치·군사 분야의 변화를, 교류지수는 경제·사회·인도지원 분야의 변화를 표시

○ (성향별 분석) 성향 구분 없이 모든 전문가들이 남북관계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평가, 특히 보수 성향의 전문가 평가가 상대적으로 악화

- 보수 성향의 평가지수와 기대지수가 중도와 진보 성향의 지수보다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크게 나타남
  - 보수 성향의 1/4분기 평가지수와 2/4분기 기대지수의 하락폭은 각각 19.1p, 23.0p로, 이는 중도 성향은 물론 진보 성향의 11.0p, 8.7p에 비해 약 2~3배에 달함
  - 보수 성향의 전문가 평가지수가 큰 폭 하락한 것은 '북미 2.29 합의'에도 불구하고, 광명성 3호 발사와 추가 핵 실험 가능성 등으로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심화된 데 따른 것으로 평가

< 성향별 전문가 평가지수 >

구 분	보수 성향		중도 성향		진보 성향		전문가 평가지수	HRI 평화지수	기대지수
	현재	예상	현재	예상	현재	예상			
'12. 1분기	17.9 (▽19.1)	21.9 (▽23.0)	17.8 (▽9.8)	22.6 (▽17.1)	21.1 (▽11.0)	29.4 (▽8.7)	18.6 (▽13.3)	29.1 (▽7.4)	24.1 (▽16.6)
'11. 4분기	37.0 (▽2.5)	44.9 (▽5.7)	27.6 (▽12.3)	39.7 (▽12.0)	32.1 (▽5.2)	38.1 (▽12.3)	31.9 (▽8.1)	36.5 (▽2.5)	40.7 (▽10.3)
'11. 3분기	39.5 (▲11.5)	50.6 (▲11.2)	39.9 (▲23.1)	51.7 (▲23.4)	37.3 (▲14.6)	50.4 (▲13.8)	40.0 (▲18.2)	39.0 (▲10.0)	51.0 (▲16.3)
'11. 2분기	28.0 (▽1.9)	39.4 (▽4.2)	16.8 (▽16.2)	28.3 (▽18.8)	22.7 (▽3.5)	36.6 (▽0.7)	21.8 (▽9.3)	29.0 (▽7.2)	34.7 (▽9.9)
'11. 1분기	29.9 (▲15.5)	43.6 (▲11.3)	33.0 (▲8.8)	47.1 (▲5.6)	26.2 (▲15.8)	37.3 (▲2.0)	31.1 (▲15.6)	36.2 (▲11.2)	44.6 (▲8.1)
'10 4분기	14.4 (▽19.2)	32.3 (▽14.4)	24.2 (▽6.1)	41.5 (▲0.7)	10.4 (▽19.0)	35.3 (▽3.4)	15.5 (▽14.9)	25.0 (▽5.1)	36.5 (▽5.5)
'10 3분기	33.6 (▲20.6)	46.7 (▲15.7)	30.3 (▲20.8)	40.8 (▲18.4)	29.4 (▲18.6)	38.7 (▲9.3)	30.4 (▲19.5)	30.1 (▲7.5)	42.0 (▲15.4)
'10 2분기	13.0 (▽6.0)	31.0 (▽0.3)	9.5 (▽4.5)	22.4 (▽8.2)	10.8 (▽5.0)	29.4 (▲0.6)	10.9 (▽5.6)	22.6 (▽7.3)	26.6 (▽3.8)
'10. 1분기	19.0	31.3	15.0	30.6	15.8	28.8	16.5	29.9	30.4

이용화 선임연구원(yhlee@hri.co.kr, 02-2072-6222)  
 홍순직 수석연구위원(sjhong@hri.co.kr, 02-2072-6221)

< 부록 1 > HRI 한반도 평화지수(HRI Peace Index)의 개요

- 한반도 평화지수란 남북 관계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전체적인 평화의 정도를 계량화된 수치로써 나타낸 지수임
- HRI 한반도 평화지수는 주관적 분석 방법론과 객관적 분석 방법론을 종합하여 분석한 통합지수이며, '전문가평가지수'와 '정량분석지수'로 구성
  - 전문가평가지수는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분기별 설문 조사를 통해 산출되며, 다음 분기에 대한 전망치를 바탕으로 '기대지수'도 측정
  - 정량분석지수는 정치·군사 영역의 '이벤트 지수' 사회·문화·인도적 영역의 '교류지수'로 구성됨
- 지수의 범위를 0에서 100으로 설계하였으며 50을 기준으로 0은 남북한의 전시 상태를, 100은 가장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함<sup>1)</sup>

< HRI 한반도 평화지수와 관계 범주 >

관계 범주	내 용	지수 범위
평화·공영 상태	남북 간 신뢰가 구축되고 평화 공존 및 남북 평화체제가 서서히 수립되는 상태	80이상
우호적 협력 상태	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태	60~80미만
협력·대립의 공존 상태	남북 간의 대화와 갈등이 교차되는 상태	40~60미만
긴장 고조 상태	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어 상대방에 대한 실제적인 위협 혹은 갈등이 발생하는 상태	20~40미만
전시·준전시 상태	핵위기가 고조되거나 군사적 충돌이 심화되어 전면전으로 치닫는 상태	20이하

1) 제시된 관계 범주는 산출된 HRI 한반도 평화지수의 크기에 따라 남북 관계 및 한반도의 평화의 정도가 현재 혹은 향후 대체로 어떠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만든 참고자료이다. 따라서 HRI 한반도 평화지수를 구성하는 세부지수들이 이 범주에 그대로 적용하여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.

< 부록 2 > 교류지수 주요 변수

< 교류지수 주요 변수 구성 >

구분	중분류	변수
경 제 (6개 변수)	남북 교역	남북한 교역액
		경제 협력액
	협력 사업	협력사업 승인 수
		경제교류협력지원
	관광	금강산 관광객
		개성 관광객
사 회 · 문 화 · 인 도 (8개 변수)	왕래	방남 인원
		방북 인원
	이산가족	이산가족 상봉 수
		이산가족교류지원
	사회문화협력	사회문화협력사업 승인 수
		사회문화협력지원
	인도적 지원	대북지원 (정부)
		대북지원 (민간)

- 주: 1) 남북한 교역액은 일반 교역과 위탁 가공으로 구성  
 2) 경제 협력액은 개성공단, 금강산 관광, 그리고 기타 경제 협력액으로 구성  
 3) 경제교류 협력지원은 협력기금의 경제분야 교류협력기반 조성액과 남북교류협력지원 융자액의 합

## < 부록 3 > 남북 관계 전문가 설문 조사

### 1. 조사 개요

- 조사 시기 : 2012년 4월 23일~5월 3일 (11日 간)
- 조사 방법 : 설문지 조사
- 조사 대상 : 연구원, 교수 등 북한관련 전문가 74명
- 표본 오차 : 95% 신뢰수준에서 최대 표본오차는  $\pm 3.08\%$

### 2. 조사 내용

#### □ 남북 관계 분석 및 전망

##### 1. 정치·군사 관계

###### 1-1) 남북 당국자 간 정치적인 신뢰 관계가 좋아졌다

항 목	1분기(%)	4분기(%)
1. 매우 그렇지 않다	52.7	20.8
2. 그렇지 않다	39.2	48.6
3. 보통이다	6.8	29.2
4. 그렇다	1.4	0
5. 매우 그렇다	0	1.4
계	100.0	100.0

###### 1-2) 남북한 간의 군사적인 긴장이 완화되었다

항 목	1분기(%)	4분기(%)
1. 매우 그렇지 않다	54.1	12.5
2. 그렇지 않다	39.2	47.2
3. 보통이다	5.4	36.1
4. 그렇다	0	2.8
5. 매우 그렇다	1.4	1.4
계	100.0	100.0

## 1-3) 북한의 대외관계 및 국제사회에서의 입지가 나아지고 있다

항 목	1분기(%)	4분기(%)
1. 매우 그렇지 않다	37.8	5.6
2. 그렇지 않다	44.6	47.2
3. 보통이다	13.5	33.3
4. 그렇다	0	12.5
5. 매우 그렇다	4.1	1.4
계	100.0	100.0

## 1-4) 북한의 내부 통치 체제가 안정화되고 있다

항 목	1분기(%)	4분기(%)
1. 매우 그렇지 않다	2.7	2.8
2. 그렇지 않다	20.3	29.2
3. 보통이다	40.5	31.9
4. 그렇다	33.8	33.3
5. 매우 그렇다	2.7	2.8
계	100.0	100.0

## 1-5) (종합) 전반적으로 남북간 정치·군사적인 관계가 좋아졌다

항 목	1분기(%)	4분기(%)
1. 매우 그렇지 않다	45.9	13.9
2. 그렇지 않다	48.6	58.3
3. 보통이다	5.4	26.4
4. 그렇다	0	0
5. 매우 그렇다	0	1.4
계	100.0	100.0

## 1-6) (전망) 남북간 정치·군사적 관계는 현재보다 좋아질 것 같다

항 목	1분기(%)	4분기(%)
1. 매우 그렇지 않다	31.1	2.8
2. 그렇지 않다	48.6	54.2
3. 보통이다	18.9	31.9
4. 그렇다	1.4	9.7
5. 매우 그렇다	0	1.4
계	100.0	100.0

## 2. 경제적 관계

### 2-1)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가 확대되었다

항 목	1분기(%)	4분기(%)
1. 매우 그렇지 않다	31.1	12.5
2. 그렇지 않다	52.7	54.2
3. 보통이다	16.2	27.8
4. 그렇다	0	4.2
5. 매우 그렇다	0	1.4
계	100.0	100.0

### 2-2)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었다

항 목	1분기(%)	4분기(%)
1. 매우 그렇지 않다	10.8	4.2
2. 그렇지 않다	36.5	15.3
3. 보통이다	35.1	41.7
4. 그렇다	17.6	31.9
5. 매우 그렇다	0	6.9
계	100.0	100.0

### 2-3) 북한 경제의 개방이 점차 확대되었다

항 목	1분기(%)	4분기(%)
1. 매우 그렇지 않다	20.3	2.8
2. 그렇지 않다	50.0	52.8
3. 보통이다	25.7	36.1
4. 그렇다	4.1	8.3
5. 매우 그렇다	0	0
계	100.0	100.0

### 2-4) 북한 내부의 경제 사정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

항 목	1분기(%)	4분기(%)
1. 매우 그렇지 않다	18.9	2.8
2. 그렇지 않다	47.3	47.9
3. 보통이다	28.4	38.0
4. 그렇다	5.4	9.9
5. 매우 그렇다	0	1.4
계	100.0	100.0

## 2-5) (종합) 전반적으로 남북 간 경제적인 관계가 좋아졌다

항 목	1분기(%)	4분기(%)
1. 매우 그렇지 않다	31.1	12.5
2. 그렇지 않다	58.1	54.2
3. 보통이다	10.8	30.6
4. 그렇다	0	1.4
5. 매우 그렇다	0	1.4
계	100.0	100.0

## 2-6) (전망) 남북 간 경제적인 관계는 현재보다 좋아질 것 같다

항 목	1분기(%)	4분기(%)
1. 매우 그렇지 않다	27.0	4.2
2. 그렇지 않다	41.9	44.4
3. 보통이다	29.7	34.7
4. 그렇다	1.4	15.3
5. 매우 그렇다	0	1.4
계	100.0	100.0

## 3. 사회·문화·인도적인 관계

## 3-1) 남북 간 사회문화 교류(문화, 체육 및 이산가족 상봉 등)가 활발해졌다

항 목	1분기(%)	4분기(%)
1. 매우 그렇지 않다	37.8	11.1
2. 그렇지 않다	48.6	56.9
3. 보통이다	13.5	23.6
4. 그렇다	0	6.9
5. 매우 그렇다	0	1.4
계	100.0	100.0

## 3-2) 북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가 높아졌다

항 목	1분기(%)	4분기(%)
1. 매우 그렇지 않다	44.6	11.1
2. 그렇지 않다	50.0	52.8
3. 보통이다	5.4	31.9
4. 그렇다	0	2.8
5. 매우 그렇다	0	1.4
계	100.0	100.0

## 3-3)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증대되었다

항 목	1분기(%)	4분기(%)
1. 매우 그렇지 않다	36.5	11.1
2. 그렇지 않다	48.6	36.1
3. 보통이다	14.9	38.9
4. 그렇다	0	12.5
5. 매우 그렇다	0	1.4
계	100.0	100.0

## 3-4) (종합) 전반적으로 남북 간 사회·문화·인도적인 관계가 좋아졌다

항 목	1분기(%)	4분기(%)
1. 매우 그렇지 않다	40.5	11.1
2. 그렇지 않다	50.0	51.4
3. 보통이다	9.5	31.9
4. 그렇다	0	4.2
5. 매우 그렇다	0	1.4
계	100.0	100.0

## 3-5) (전망) 남북 간 사회·문화·인도적 관계는 현재보다 좋아질 것 같다

항 목	1분기(%)	4분기(%)
1. 매우 그렇지 않다	29.7	2.8
2. 그렇지 않다	47.3	38.9
3. 보통이다	20.3	36.1
4. 그렇다	2.7	20.8
5. 매우 그렇다	0	1.4
계	100.0	100.0